폴리미래, 10월 PP 정기보수 돌입

8월 2개 라인 가동중단에 이어 ... 프로필렌과 PP 스프레드 65달러

폴리미래가 10월 중순 PP(Polypropylene) 정기보수에 들어간다.

No.1 라인과 No.2 라인은 10월20일부터 1주간의 정기보수에 들어갈 계획이며 No.1-No.4 라인의 생산능력은 각각 15만6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업스트림인 프로필렌 가격강세는 한풀 꺾였는데 프로필렌 가격은 9월8일 FOB Korea 톤당 1305달러로 80달러 폭락했으며 PP 가격은 9월6일 Raffia/Injection 그레이드 기준 CFR FE Asia 톤당 1365-1375달러로 15달러 하락했다.

일반적으로 PP는 프로필렌보다 톤당 100-150달러 높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으나 현재의 스프레드는 65달러에 불과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.

폴리미래는 채산성 악화에 8월에도 No.1 라인은 8월12일부터 8월21일까지, No.3 라인은 8월8일부터 8월26일까지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.

<화학저널 2006/09/14>